

탐사저널리즘의 주체 변동: 공영모델의 조락과 비영리모델의 부상

Change in the Leading Provider of Investigative Journalism: the Decline of the Public Service Model and the Emergence of a Nonprofit Model

박인규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In-Kyu Park(inkyupark@inha.ac.kr)

요약

2010년대 공영방송에서 탐사보도가 쇠락한 반면 비영리 매체 <뉴스타파>가 신뢰받는 탐사보도 기관으로 부상했다. 본 연구는 그 이유를 탐사보도의 현실적인 조건, 즉 저널리스트와 체계, 제작문화가 공영방송과 뉴스타파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정부의 압박과 경영진의 탈저널리즘 정책으로 공영방송의 탐사보도는 위축되고 제작진의 의지는 약화되고 그간 형성된 제작전통도 무너졌다. 뉴스타파는 저널리즘 실천의 의지, 자율적인 제작문화를 바탕으로 단시간에 영향력 있는 탐사보도 기관이 되었다.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저널리스트와 장시간의 취재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작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의미 있는 탐사보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탐사보도는 해당 방송의 저널리즘 환경과 제작문화의 소산이다.

■ 중심어 : 탐사보도 | 공영방송 | 뉴스타파 | 비영리 모델 | KBS | MBC |

Abstract

While the practice of investigative journalism among public service broadcasters has declined in the 2010s, Newstapa, a nonprofit online news organization, emerged as a trustworthy provider of investigative reportage. This study explores the reasons why the realistic conditions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 such as competent journalists, adequate support systems, and productive cultures -- were first realized and later changed among public broadcasters and in Newstapa. Governmental pressure and the public broadcasting managements' anti-journalism policy had a chilling effect on the production staff of public broadcasters. Their enthusiasm was affected and led to a decline in the production culture of discussion and teamwork. The staff's strong will to practice journalism and the persistence of a production culture that respected autonomy and guaranteed independence enabled Newstapa to become an influential investigative journalism institution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This proves that meaningful investigative journalism is possible when the combined elements of competent and determined journalism practitioners, as well as a system supportive of extensive news gathering and independence of production, are in place. An investigative program is the outcome of ideal broadcasters' journalistic conditions and a vibrant and thriving production culture.

■ keyword : Investigative Journalism | Public Broadcasting | Newstapa | Nonprofit Model | KBS | MBC |

* 본 연구는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7년 07월 12일

수정일자 : 2017년 07월 3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7월 31일

교신저자 : 박인규, e-mail : inkyupark@inha.ac.kr

I. 서론

탐사보도(investigative journalism)는 저널리즘의 한 유형으로 특정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보도를 말한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방송 부문에서 장르상 다큐멘터리로 분류되며 '시사보도 프로그램', '시사 다큐멘터리' 등으로도 불린다. 종합뉴스 프로그램이 1분 30초 내외의 짧은 리포트들로 구성하는 것에 비해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한두 가지 주제에만 집중한다.

탐사보도는 비싸다. 탐사보도는 일반적인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제작에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지속적인 할애 없이 의미 있는 탐사보도가 나오기 어렵다. 경험 많은 기자나 프로듀서가 몇 개월씩, 때로는 1년 넘게 취재하기도 하는데 반드시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윤을 좇는 사영방송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하는 부문으로 간주되고 있다.

탐사보도는 방송사의 저널리즘에 대한 인식과 의지를 나타내고, 그것이 실천하는 저널리즘의 수준을 드러낸다. 한국의 텔레비전 저널리즘은 1960년대에 시작하지만 탐사보도는 1987년 이후에야 사회의 민주화에 힘입어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 초 문화방송과 한국방송은 각각 <PD수첩>과 <추적60분>을 편성하면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 금기시되었던 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고 점차 한국 사회의 부조리와 구조적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1]. 2000년대 동안 한국의 텔레비전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주시청시간대에 탐사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했고, 특집기획 프로그램도 다수 마련했다. 한국방송은 보도본부 안에 탐사보도를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했다. 2000년대 중후반 탐사보도의 전성기를 이끈 것은 공영방송이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며, 각별히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프로그램의 수가 줄었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화되었다. 공중이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다룬다 해도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축소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영방송의 탐사보도가 수용자들의

기대와 필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탐사보도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전송 수단으로 삼은 독립매체가 그간 공영방송을 비롯한 기존 언론이 눈감은 문제들을 다루며 사회의 이슈로 이끌어냈다. 지상파나 케이블을 통하지 않는, 그래서 방송이라고 부르기에 마땅치 않은 <뉴스타파>는 시민들의 호응과 지원에 힘입어 한시적인 프로젝트를 넘어서 정식 저널리즘 기관이 되었다. <뉴스타파>는 방송사 일반의 사업모델과는 전혀 다른 비영리 독립모델로서 5년 이상을 버티며 주요한 탐사보도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현실적으로 탐사보도는 일반보도와 달리 특별하고 예외적인 조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전문성을 갖춘 저널리스트,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한 가지 사건을 추적할 수 있게 허용·지원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 저널리즘 문화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 있어야 한다. 탐사보도의 상당 부분은 제보에 기초한다. 가치 있는 정보라면 어떤 압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프로그램으로 다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제보가 이루어진다. 이 연구는 최근 탐사보도가 공영방송에서 쇠락하고 비영리 매체인 <뉴스타파>가 탐사보도 기관으로 부상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탐사보도의 현실적인 조건, 즉 저널리스트와 체계, 제작문화가 공영방송과 비영리 매체에서 각각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또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룰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과 관련 연구

1. 이론적 논의

저널리즘은 민주주의의 작동을 위해 불가결한 요소로 간주된다. 시민들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제반 사실을 알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포럼을 제공하는 저널리즘은 민주사회의 근간인 것이다. 저널리즘이 위축되면 사회가 건강할 수 없다.

탐사보도는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서 저널리스트들이 정치 부패, 기업 비리, 조직범죄 등 특정한 사안을 직접

조사하여 사실을 밝히는 보도를 일컫는다. 보통 경험이 많은 저널리스트가 담당하며 기획부터 보도까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된다. ‘탐사보도’ 또는 ‘탐사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특별한 형태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정보를 찾아나서는 것, 즉 탐사이기 때문에 탐사가 없는 저널리즘을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 뉴스가 사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보도는 탐사적이며, 그래서 전통 저널리즘과 다를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3].

탐사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저널리즘에 ‘탐사’를 덧붙이는 것은 동어반복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는 이유는 지금 저널리즘에 탐사적인 속성이 거세되어 있기 때문이다[4]. 사실 신문과 방송의 대다수 기자들이 탐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보도자료에 의존하여 기사를 쓰는 것이 다반사다. 탐사저널리즘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분석하고 재해석한다. 탐사저널리스트는 일상적인 뉴스 생산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독자적인 취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저널리스트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어야 진정한 탐사보도라는 의견도 있다. 영국의 독립언론 ‘탐사보도국’(Bureau of Investigative Journalism)의 편집국장 크리스토퍼 허드는 많은 탐사보도가 내부고발과 유출된 문서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보다는 저널리스트가 스스로 오랜 시간을 들여 바닥까지 파헤쳐 문제점을 드러내고 변화를 가져올 때까지 보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

탐사보도의 내용은 일반적인 보도와 다르다. 탐사보도의 내용적 특성은 “누군가 숨기려고 하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파헤치는 것”이다. 여기서 ‘그 무엇’은 부정과 부패이고 ‘누군가’는 제도와 권위, 구조 등이다[6]. 탐사저널리즘은 지배체제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회적 우선과제를 직접 설정하고자 한다[7]. 또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 때문에 지배체제에 공격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하다.

탐사보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과 저널리스트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공공이익과 사회정의에 비추어 개혁내지 변화가 필요한 숨겨져 있는 사건이나 사안을 저널리스트가 독립적 관점에 입각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히

취재하고 분석하여 이를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8]. 따라서 역량과 의지가 있는 저널리스트와 장시간의 취재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리고 제작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의미 있는 탐사보도가 가능하다. 탐사보도는 해당 방송의 저널리즘 환경과 제작문화의 소산인 셈이다.

2. 관련 연구

탐사보도의 제작 주체에 관한 연구로는 김연식(2005)과 육서영(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김연식은 <PD수첩> 제작과정의 참여관찰과 제작진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탐사보도에 대한 PD들의 인식과 제작관행을 다루었다[9]. 그는 PD들이 탐사보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개혁성’에 두고 있으며 그런 견지에서 객관보도를 중시하는 기자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PD수첩>의 제작은 2명의 PD가 1조를 이루어 전체로는 4개조가 1회씩 순차적으로 맡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제작진 내의 의사결정은 책임PD, PD, 작가 등이 직책에 상관없이 대체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육서영과 윤석민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에서 구성작가가 수행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분석했다[10]. 작가는 기획에서 구성, 편집까지 ‘전방위적’ 관여를 통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PD의 주관성이 발휘될 소지가 많은 탐사보도 제작에서 내부 비판자 또는 견제자로서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PD와 작가만으로 프로그램의 향방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검증 없이 둘의 입장이 동조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편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탐사보도의 통제와 관련한 연구로는 김연식(2014), 박인규(2010), 임명현(2016)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박인규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 동안 KBS 시사프로그램이 편성과 제작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해 그 원인을 추적했다[11]. 그는 경영진의 개입과 제작간부의 간섭이 일상화되면서 제작진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탐사보도가 위축되었다고 진단했다. 김연식은 방송 저널리스트에 대한 통제 요인을 방송사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나누고 총 13개의 요인으로 범주화했다

[13]. 지상파 방송 3사의 기자와 PD들은 2008년에 비해 2013년에 방송사 안팎의 통제가 강화됐다고 인식했다. 이들은 외적으로는 정치권력의 변동으로 방송정책과 운영이 크게 달라졌으며 내적으로는 이전에 미미했던 경영진의 통제가 간접적인 것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바뀌었다고 응답했고 가장 강력한 통제 요인으로 상급자의 통제를 꼽았다. 임명현은 2012년 170일간의 파업 뒤 MBC 경영진이 통제 전략으로 도입한 인사관리 정책이 구성원들의 주체성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분석했다 [13]. 그는 정계, 전보, 직종 전환 등의 방식으로 파업 참가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영진의 인사방식을 ‘비인격적 인사관리’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경영진은 전문직주의에 기초하여 상호 소통이 활성화된 조직이 아닌 위계적으로만 작동하는 조직을 원했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기자와 PD들만 ‘도구적 주체’로서 저널리즘 조직에 남겨두고 통제가 불가능한 이들은 ‘잉여적 주체’로 구분하여 업무에서 배제했다. 비인격적 인사관리로 대다수 구성원들은 저항적 실천을 ‘유예’하고 체제에 순응하는 선택을 했다.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2010년대 방송 탐사보도의 주체가 공영방송에서 비영리 매체로 바뀌게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1. 공영방송 공통적으로 탐사보도가 쇠락하게 된 이유와 제작문화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기존 연구들은 개별 방송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제와 그것이 초래한 결과의 분석에 집중하였다. 즉 KBS 경영진의 통제 강화에 따른 시사 프로그램의 축소, MBC 경영진의 비인격적 인사관리로 인한 구성원의 주체성 변화, 그리고 시사·보도 제작진의 통제요인에 대한 인식 추이 등을 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의 성과를 토대로 보다 통합적인 측면에서 공영방송 전체적으로 탐사보도가 쇠퇴하게 된 원인을 탐구하였다. 즉 정부의 공영방송 정책, KBS와 MBC 경영진 공통의 탐사보도 운용, 제작진의 의지 및 제작문화 변화라는 측면에서 분석했다.

연구문제2. 비영리 매체 <뉴스타파>가 탐사보도의 주체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디지털화에 따른 저널리즘 환경의 변화와 비영리 탐사매체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를 연계하거나 개별 비영리 탐사매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공영방송과는 규모와 역사 등 면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뉴스타파>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영향력 있는 탐사매체로 성장한 이유를 찾고자 했다. 외형적인 조건의 현격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인적 측면, 각별히 제작진의 의지와 제작문화에 주목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한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연구논문, 신문 및 잡지 기사, 인터넷 자료 등을 참고했다. 탐사보도팀의 운영 및 제작 과정의 변화를 담기 위해 2010년대에 KBS, MBC, 뉴스타파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을 수행한 기자, PD, 구성작가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내용은 탐사보도팀 또는 프로그램 제작팀의 인력 구성, 예산을 비롯한 물적 조건,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의 자율성, 경영진 및 외부 영향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이었다. 인터뷰는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대면면접 방식으로 실시했다. 심층인터뷰 내용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인터뷰로 보충하였다.

표 1. 심층인터뷰 대상자

| 소속 | 직무 | 경력 | 방식 | 일시 |
|-----|----|-----|----|--------|
| KBS | PD | 19년 | 대면 | 5. 19. |

| | | | | |
|------|------|-----|----|--------|
| KBS | 기자 | 18년 | 대면 | 5. 26. |
| MBC | 기자 | 16년 | 대면 | 6. 9. |
| MBC | PD | 28년 | 대면 | 6. 16. |
| 뉴스타파 | 기자 | 25년 | 대면 | 6. 2. |
| 뉴스타파 | 구성작가 | 18년 | 대면 | 6. 9. |

IV. 연구결과

1. 공영방송 탐사보도의 쇠락 원인

공영방송의 탐사보도가 2010년대 들어 급격히 쇠락하게 된 것은 정부의 직간접적 압박, 친정부적 경영진의 통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한국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친정부적 인사들로 채웠고 이들은 같은 형태로 경영진을 선임했다. 경영진의 간섭이 일상화되면서 제작진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 탐사보도의 기초가 무너졌다.

1.1 정부의 통제

정부는 미디어의 저널리즘 실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미디어가 누리는 취재·보도의 자유,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나타낸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아래 언론의 자유는 이전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다. 전 세계의 언론자유도를 조사, 발표하는 양대 기관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와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공통으로 한국의 언론자유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프리덤 하우스는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 인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1980년 이래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도에 관한 연차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개별 국가의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는 매체 운용의 법적 환경, 보도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도에 대한 경제적 압력 등 3개 부문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을 종합한 결과로 ‘자유국’(Free),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 ‘비자유국’(Not Free)으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0년대 내내 ‘자유국’에 속했으나 2011년부터 ‘부분적 자유국’이 되었다. 2011년도 보고서는 “억압적인 정부가 전통적인 미디어와 인터넷 기반의 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서 언론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나라”로 한국을 들었다 [14].

표 2. 한국의 언론자유 평가

| 평가기관 | 2006년 | 2016년 |
|-----------|-----------|-----------|
| 프리덤 하우스 | 자유국 | 부분적 자유국 |
| 국경 없는 기자회 | 31위/160개국 | 70위/180개국 |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미디어와 언론인에 대한 규제와 압력 등을 토대로 매년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를 작성하고 있다. 2016년 보고서는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 아래 미디어와 정부 당국 간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고 정부가 갈수록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개입하여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최대 7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법이 미디어로 하여금 자기 검열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적시했다[15].

통상 민주적인 정부는 언론의 문제제기와 비판이 탐탁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삼간다. 미국에서는 보도에 실질적인 악의가 있음을 정부가 증명해야 하고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체제에서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해당 언론에 정부가 반론권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사정기관과 규제기관을 통해 방송을 압박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MBC <PD수첩>에 대해 정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제기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프로그램의 지역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이 제제는 방송국 재허가와 관련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 처분(4점 감점)이다.

임기 초 <PD수첩> 여파로 곤욕을 이명박 정부는 KBS 사장과 MBC 사장의 교체 작업에 나섰다. 한국방송의 경우에는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사퇴를 압박했다.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을 이유로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고 국세청은 KBS의 외주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또 검찰은 3년 전 있었던 국세청과의 세무소송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사장을 소환했다. 그동안 KBS 이사 일부를 교체하여 여야 구도를 바꾸었고 2008

년 8월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통과시켰다. MBC의 경우에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새로 구성하면서 친정부적 인사들이 다수가 되도록 하여 2010년 2월 사장을 교체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기간까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친정부적 인사가 임명되었다.

1.2 경영진의 ‘탈저널리즘’ 정책과 일상적 개입

공영방송의 사장에 친정부적 인사가 임명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이 시기 KBS와 MBC 양사 사장들의 ‘탈저널리즘’ 정책이다. 외부적으로는 저널리즘을 중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저널리즘을 우선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나 여당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뉴스나 탐사보도가 방송되지 않도록 통제했다. 저널리즘 부문의 간부들은 아이টেম을 ‘검열’하고 최종적으로는 사장이 직접 나섰다[22].

표 3. ‘불방’ 처리된 MBC 프로그램

| 프로그램 | 방송예정 | 결정자 | 사장 |
|-------------------------------------|--------------|------|-----|
|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 2010. 8. 17. | 사장 | 김재철 |
|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 2013. 6. 23. | 제작부장 | 김종국 |
| 〈MBC스페셜〉 ‘탄핵’ | 2017. 3. 13. | 본부장 | 안광한 |

KBS는 정연주 사장이 해임된 후 이병순 사장부터 고대영 사장에 이르기까지 시사 및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줄이고 이에 대한 지원도 축소했다. 시사 축소의 상징적인 사례로 <생생정보통>과 <KBS 파노라마>를 들 수 있다. 2010년 5월 신설된 <생생정보통>은 2009년 가을개편에서 폐지된 데일리 시사 프로그램 <시사 360>의 대체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음식, 여행, 건강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서 시사 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유일한 시사성 코너인 ‘시선 600’마저도 2011년 10월로 폐지되었다. 2013년 봄 개편에서 신설한 <KBS 파노라마>는 KBS의 4대 스페셜, 즉 <KBS 스페셜>, <환경스페셜>, <역사스페셜>, <과학스페셜>을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홍보되

었다. 홈페이지에서 ‘KBS의 역량을 모두 모아 만든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소개했는데 제작방식이 다큐멘터리라는 것 말고는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 수 없게 설정되었다. 앞서 <KBS 스페셜>이 토·일 저녁 8시대에 편성되어 주요한 탐사보도의 출구 역할을 한 것과 비교된다.

KBS <추적 60분> 제작진은 소속 본부가 바뀌는 경험을 해야 했다. 1983년 이래 TV본부에서 피디들이 만들어 왔는데 김인규 사장은 2010년 6월 보도본부 이관을 결정했다. 피디와 기자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협력, 제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으나 보도본부에 배속하여 아이টেમ 검열과 원고 관리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 실제 의도라고 피디협회는 해석했다. 2013년 10월 TV본부로 복귀하기까지 제작진은 시사제작국장과 방송의 주제와 내용을 놓고 마찰이 잦았다.

표 4. <추적 60분> 관련 시사제작국 결정

| 주제 | 방송예정 | 결정 |
|---------------|----------|-------|
| ‘MBC 파업사태’ | 2012. 7. | 취재 불가 |
| ‘4대강’ | 2012. 4. | 방송 불가 |
|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 2013. 8. | 방송 불가 |

KBS의 이병순 사장과 김인규 사장은 정연주 사장 시절 정책적으로 육성한 탐사보도팀을 축소·해체했다. 탐사보도팀은 2005년 4월 보도본부의 독립 팀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취재기와 촬영기자, 전문리서처 등 총 26명으로 구성되었다. 취재기자의 경우에는 경찰·법조 등의 부문에서 20년까지 취재 경력을 쌓은 이들 가운데 선발되었다. 이들은 보통의 기자들과 달리 특정 기관을 출입처로 정하지 않고 주제에 따라 자유로이 취재했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취재하되 주제의 중요도와 시의성에 따라 그 결과를 <뉴스 9>의 기사로, <시사기획 씬>의 파트 프로그램으로, 또는 <KBS 스페셜>의 단독 프로그램으로 방송했다. 전문리서처 4명을 채용한 것은 방송사 초유의 일로서 KBS가 탐사보도에 주력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들은 ‘컴퓨터 지원 보도기법’, ‘지리 정보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다. 이병순 사장은 취임 직후 탐사보도팀의 조직상 지위를 ‘팀’에서 ‘파트’로 강등했다. 김인규 사장은

탐사보도팀을 해체하기로 했다가 기자들이 반발하자 철회했다. 그러나 인원과 예산을 대폭 감축했다.

1.3 제작진의 자기검열과 체념

KBS와 MBC의 탐사보도 제작진은 2000년대와는 사뭇 달라진 환경 속에서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취재 자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지만 취재 허가를 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 많아졌다. 종전에 팀장 선에서 결정되던 것을 국장, 본부장, 때로는 사장까지 보고해야 했다. 또 어렵게 취재하고도 간부나 경영진의 결정으로 방송되지 못하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프로그램이 방송된 다음에도 해당 기관의 고소·고발, 검찰의 수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이어졌다. 그전에도 송사는 종종 있었지만 탐사보도에 따르는 차례로 여겼다. 그러나 점차 공연한 보도로 조직에 누를 끼친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두 방송사의 경영진 모두 정권과 관련한 탐사보도를 독려하기보다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 취재를 허가하지 않고, 내용을 수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방송을 내보내지 않았다. 경영진의 명령과 간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와 진출, 해고가 뒤따랐다. MBC의 경우 2011년 3월 <PD수첩>의 최승호 PD를 비롯한 중진 PD들이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프로그램으로 방출되었다. 담당 국장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 인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탐사보도는 무엇보다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인데 이치에 닿지 않는 설명이었다. 2012년 7월에는 <PD수첩>의 구성작가 전원이 해고되었다. 해고에 대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영진과 개입과 제작간부의 간섭이 일상화되면서 제작의 자율성은 크게 후퇴했다. 아이템 검열이 강화되면서 프로그램은 연성화되고 제작진의 자기검열도 점차 심해졌다. 공정성이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아이템에 제동이 걸리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제약을 받게 되고 결국 자기검열에 이르게 되었다. <추적 60분>을 담당하는 PD는 자기검열이 아이템 선정부터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내면화됐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라고 밝혔다.

KBS PD: MB정부 동안 권력에 비판적인 주제를 다루는 게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든 해보려는 의지가 남아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다들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이제 뭘 할 수 있겠나, 체념과 냉소주의가 만연했다.

탐사보도 제작의 전통과 문화도 변화했다. 프로그램 제작팀은 제작공동체로서 나름의 역사와 문화, 경험을 공유하며 공통의 가치를 지향한다. 후배 PD 또는 기자는 선배들로부터 프로그램의 정신과 취재 기법을 전수 받고 고유의 관례를 통해 팀원으로 성장한다. <추적 60분>의 경우 최근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방송할 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하던 '라인업 회의'가 끊겼다. 대신 방송 주제는 제작간부와 PD 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같은 팀이지만 동료 PD가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모르고 지내게 되었다. 프로그램의 취지를 공유, 재확인하고 그에 비추어 현재 각 PD가 맞는 방송을 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고 마땅한 주제를 집단지성으로 찾는 과정이 사라진 것이다.

역압적인 제작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있었다. 프로그램 제작팀 내부적으로 부당한 지시와 개입에 대한 항의가 있었고 PD협회와 기자협회의 차원의 시위도 있었다. 대규모 항의는 2012년 KBS 노동조합의 95일간 파업과 MBC 노동조합의 170일 파업이었다. 그러나 경영진과 제작간부의 행태는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통제와 억압의 강도가 심해졌다.

MBC 기자: 경영진은 파업 기간 중 대체인력으로 시용기자들을 뽑았고 파업 뒤에는 경력기자들을 또 뽑았다. 파업참가 기자, 시용기자, 경력기자가 한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 당연히 팀워크를 이루기 어렵고 MBC가 정상화된다고 해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거다.

MBC는 파업 뒤 파업에 참가한 기자와 PD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며 '무관 부서'에 배치했다. 해고되거나 비제작부서에서 무관 업무를 하는 PD와 기자들, 제작부서 안에 있지만 지원 업무만 담당하는 PD와 기자들은

‘잉여적’ 존재로서 모멸감과 공포를 느끼며 이런 감정을 점차 자신과 주변으로 돌리게 되었다. 반면에 파업에 참가했다가 복귀한 PD와 기자, 파업 이후 입사한 시용·경력자들은 ‘도구적’ 존재로서 언제든 잉여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경영진이 강제하는 제작 체계에서 ‘납품업자’가 되었다. 이들의 집단심리는 수치심과 무력감, 패배주의로 표현된다. 제작진의 자기검열과 체념 속에 공영방송의 저널리즘 실천은 유예되고 위축되었다.

2. <뉴스타파>의 부상

권력과 자본의 감시라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실천하려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의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재정적 독립, 자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제작문화가 <뉴스타파>를 비중 있는 탐사보도 매체로 만들었다.

2.1 저널리즘 실천의 의지

뉴스타파는 2012년 억압적인 정부의 통제로 가로막힌 언론을 뚫어보자는 언론노조의 프로젝트로 출발했다. 신문, 방송, 출판 등 매체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산업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11년 후반,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이하 민실위)의 특별 사업으로 자체 뉴스제작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공영방송이 사실상 정권에 장악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국 사회의 중요 문제가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7]. 그간 언론노조 민실위의 주요 역할은 언론의 보도내용에 대한 감시와 비평이었는데 이제 그것을 벗어나 직접 보도에 나선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친정권 인사의 사장 임명 반대나 공정보도 등을 주장하다가 해직된 저널리스트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해직된 기자와 피디는 19명에 달했다. 해직자는 노조의 지원 등으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었지만 경력의 공백을 피할 수 없었다. 뉴스타파는 해직 언론인의 활동공간 필요와 기성 언론의 한계를 넘어 제대로 된 탐사보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모여 출범했다.

2013년 상시적인 저널리즘 기관으로 출범한 뉴스타파에는 2000년대 MBC와 KBS의 탐사보도 주역들이 합

류했다. 최승호 PD는 뉴스타파 시즌3의 앵커를 맡았다. 그는 <PD수첩>을 통해 4대강 문제와 검찰 스폰서 의혹을 고발하는 등 MBC 탐사보도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의 퇴진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되었다. KBS의 탐사보도팀장을 지낸 김용진 기자는 뉴스타파의 대표직을 맡았다. 그가 이끌었던 탐사보도팀이 국내외의 우수한 저널리즘 상을 휩쓰는 실적을 냈지만 2008년 8월 이후 탐사보도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이병순 사장이 취임한 뒤 탐사보도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면서 부산총국 평가자로 발령을 받았고 다시 한 달 뒤 울산방송국에 파견 조치되었다. 그는 울산에서 지역 현안을 발굴, 취재했지만 좀처럼 보도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결국 KBS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탐사보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직했다. 그와 KBS 탐사보도팀에서 함께 일했던 최경영, 김경래 기자도 같은 이유로 옮겨왔다. 2016년에는 최문호 기자가 합류했다. 그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한국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전수 검사해서 역대 정권이 서훈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간부들의 저지로 KBS에서 방송하지 못하게 되자 사표를 썼다. 이들은 저널리스트로서 자신이 추구하는 저널리즘의 실천을 유예하지 않았다. MBC와 KBS가 제공하는 직업적 안정성, 사회적 인지도를 뒤로 하고 취재의 자유 말고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는 뉴스타파로 옮겨왔다.

뉴스타파 기자: 뉴스타파에는 부서도 없고 출입처도 따로 없다. 기자들은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수시로 모여 논의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정리해 나간다. 어떤 주제든 다룰 수 있다. KBS나 MBC처럼 중간단계에서 막거나 방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게 싫어 떠났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깐.

뉴스타파는 기성언론이 침묵하는 문제들을 발굴해 드러냈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 불법사찰, 자원외교 실상이 뉴스타파의 취재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및 메르스 사태 대응, ‘창조적’ 해외순방, 개성공단 철수 결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도 다루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

작 사건 등 뉴스타파는 한국 언론 가운데 단시간에 국정원을 가장 많이 다룬 매체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판피아·핵피아 등 권력화된 집단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탐사보도를 냈다.

2.2 비영리 모델, 일체의 권력으로부터 독립

뉴스타파는 본래 언론노조의 한시적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언론노조 민실위의 2012년 특별사업으로서 종합뉴스 프로그램인 <뉴스타파>는 1월 27일 첫 방송 이후 매주 한 프로그램꼴로 방송했고 6월 30일 21회 프로그램으로 마감했다. 해직자와 현직자를 합쳐 열명 남짓한 인원으로 매주 1시간 안팎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을 감당했다. 첫 시리즈 제작기간 내내 인력 부족과 제작비 고갈에 봉착했지만 제작진은 내부 논의를 거쳐 두 번째 시즌을 결정했다. 제작비는 시민 후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7월 6일, 첫 번째 후원자가 등록했고 이후 후원 회원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뉴스타파> 시즌 2는 8월 17일 22회 방송으로 시작하여 18대 대선을 앞둔 12월 15일 38회 프로그램으로 마감했다.

1년 프로젝트 뉴스타파는 대선이 끝나면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바뀌었다. 주류 언론에 실망한 시민들 다수가 후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대한 격려와 기대의 표명이었다. 시즌 2가 끝날 무렵 뉴스타파의 후원자가 7천여 명이었는데 대선이 끝난 다음 한 달 사이에 2만 명이 늘었다. 뉴스타파 제작진은 논의 끝에 비영리 독립매체로서 탐사보도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타파는 프로그램의 이름이자 새로 출범한 비영리 독립매체의 이름이기도 하다. 2013년 초 뉴스타파 제작진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The Korea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KCIJ)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했다. 뉴스타파는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고자 광고를 받지 않으며 정부나 이익단체의 지원도 일체 거부하고 시민의 자발적 후원으로만 운영하기로 했다. 정파성과 상업주의를 배격하고 ‘성역’ 없이 언론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대변을 천명했다. 뉴스타파의 산실이자 제작공간이었던 언론노조의 사무실에서 나와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다. 공개채용을 통해 경력 기자와 신입 피디를 충원하며 나름 진용을 갖췄다.

비영리 탐사매체의 최대 장점은 모든 형태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독립성이다. 정부의 재허가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되고 대기업의 광고 집행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무엇이든 부당하고 부조리한 것이라면 비판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저널리즘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 신문의 경우, 광고주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하에 놓여 있고 자본권력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광고주의 호감을 얻어 광고를 수주하려는 ‘순응 전략’에 몰두하고 있다[17].

비영리 탐사매체의 또 다른 장점은 집중력이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의 저널리스트는 1년에 평균 3건의 기사를 쓴다.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하면 인력을 총동원해 집중할 수도 있다. 일간지처럼 새로운 판을 매일 내야 하는 것도 방송일자가 잡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필요한 만큼 또 충분하게 취재할 수 있기에 완성도 높은 기사를 낼 수 있다. 같은 주제라도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다룰 수 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2013년에만 10여 차례 다루었다. 일반 방송이라면 이렇게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영리 탐사매체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면, 민주사회의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주제라도, 또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2.3 자율성, 연대, 데이터저널리즘 중시

자율성은 탐사보도의 기초적 조건이다.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제작진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뉴스타파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다 해직된 저널리스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던 만큼 자율적 제작을 당연시한다. 시즌 3부터 비영리 독립언론으로 출범하면서 구성원 일부가 교체되었지만 제작의 기풍은 이어졌다. 진행을 맡은 최승호 앵커는 어떤 주제든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이슈를 제한 없이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뉴스타파의 다른 점으로 꼽았다[18].

연대를 통한 국제공조 취재도 비영리 탐사매체의 장

점이다. 뉴스타파가 2013년과 2016년에 방송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조세도피처 보도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주관한 역외탈세 프로젝트의 산물이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국경을 초월한 이슈, 즉 국제적 차원의 조직범죄나 환경, 인권 등과 관련하여 국제 공조 취재를 진행해왔다. 2016년의 경우, 독일의 쾰트도이체 차이퉁이 조세도피 관련 데이터를 입수한 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 협업을 요청했다. 파나마 법률회사에서 유출된 조세도피처 자료는 2.6 테라바이트로 언론인이 입수한 것 중에 최대 규모였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전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각국의 회윈사에 제공했다. 뉴스타파는 데이터 분석과 관련 한국인 신원 및 페이퍼 컴퍼니 설립목적 확인을 거쳐 프로젝트 시작 9개월 만에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을 방송했다. 정치와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있어 국제협력 취재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뉴스타파는 데이터저널리즘의 필요성을 이해하여 초기부터 데이터저널리즘 연구소를 설치했고 데이터-리서치팀을 상설 조직화했다. 2013년 4월 뉴스타파가 낸 ‘국정원 연계 추정 트위터그룹, 대선 여론 개입 확인’ 보도는 “데이터 저널리즘과 발로 댄 리포팅”의 성과였다 [19]. 뉴스타파는 2012년 대선 국면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공간에서도 활동했다는 정보를 얻고 의심 가는 트위터 계정들을 확보했다. 이어서 이들 트위터와 연관된 계정과 그 내용을 수집하여 650여 개의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과 이들이 생산, 유포한 30만 개의 트윗 글을 추출했고, 사회관계망 지도 작성을 통해 최소 10개 그룹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프로그램 제작 당시 국내 소셜네트워크 회사 어느 곳에서도 축적한 트윗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직접 웹크롤러(web crawler) 프로그램을 만들어 트윗을 긁어모았고 사회관계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위터 계정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여 그룹화 했다[21]. 뉴스타파는 탐사보도의 기획 단계부터 리서치-데이터 기자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원전문서록 2014’, ‘정치 후원금 분석’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16’도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보도되었다. 뉴스타파는 원본 데이터를 공개하여 타매체나 시민들이 거기서 또 다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

V. 결론

1990년대 초반 활성화되어 2000년대 전성기를 맞았던 공영방송의 탐사보도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퇴조했다. 정치적 압력과 내부적 통제, 제작진의 자기검열 강화와 저널리즘 실천의 유예가 초래한 결과다. 비판에 관용적이지 않은 정부는 탐사보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직접적으로는 탐사보도의 대상이 된 정부기관이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거나 소송을 제기했다. 간접적으로는 공영방송 경영진의 재편을 통해 압박했다. 정부는 먼저 KBS와 MBC의 이사회를 친여 구조로 바꾼 다음 KBS 사장과 MBC 사장에 친정부 인사를 임명했다. 새로 구성된 KBS와 MBC 경영진은 탈저널리즘 정책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줄이고 지원도 축소했다. 탐사보도 제작의 주축 역할을 해온 기자와 PD, 작가들을 ‘무관부서로 보내고 해고했다. 이들이 떠난 자리를 탐사보도의 의지도 경험도 없는 사람들로 채웠다. 방송사 또는 프로그램 고유의 탐사보도 제작전통도 무너졌다. MBC의 경우, 경영진의 프로그램 개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장 책임제’가 무력화되었다. <추적 60분>의 경우, 제작진이 함께 모여 탐사저널리즘의 정신을 되새기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성찰하는 ‘라인업 회의’가 사라졌다. 토론과 회의를 통해 결정되던 아이템이 명령과 지시로 하달된다. 경영진의 개입과 간부들의 간섭 속에 자율적 제작의 문화가 훼손되고 제작진의 사기는 꺾였다.

표 5. 탐사보도의 주체 변동 원인

| 공영방송의 침체 | 뉴스타파의 부상 |
|--------------------------|----------------------|
| 정부의 통제 강화 | 구성원의 저널리즘 실천 의지 |
| 경영진의 ‘탈저널리즘’ 정책과 일상적인 개입 |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비영리 법인 |
| 제작진의 자기검열, 체념 | 자율적인 제작문화 |

<뉴스타파>가 탐사보도의 주제로 부상한 이유는 구성원의 저널리즘 실천의 의지가 강하며, 비영리 매체로서 권력과 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롭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독려하는 제작문화를 갖추었기 때문이다. 김용진 기자와 최승호 PD로 대표되는 뉴스타파의 시니어 저널리스트들은 2000년대 KBS와 MBC에서 탐사보도를 주도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저널리즘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를 중시하고 저널리스트로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널리즘을 억압하는 안팎의 압력에 저항했고, 저널리즘의 실천을 위해 뉴스타파라는 불안정한 미래를 선택했다. KBS와 MBC가 제공하는 경제적 안정보다 탐사보도의 기회를 우선시했다. 상황이 바뀌길 기다리며 저널리즘의 실천을 유예하고 있는 이들과는 달랐다. 탐사보도의 경험이 많고 의지가 있는 중견 저널리스트들이 중심을 이루면서 뉴스타파는 짧은 역사와 소규모임에도 탐사보도의 산실이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과 자원외교, 국정원의 대선 개입, 박근혜 정부의 예산 입안과 집행, 재벌의 조세회피 등과 같이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는 성역이 없었다. 주제 하나하나가 조사부터 사실 확인, 검증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작업이지만 뉴스타파는 데이터저널리즘을 비롯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보도했다. 제작의 자율성은 뉴스타파가 언론노조의 프로젝트였던 시절부터 지켜온 원칙이다. 제작진이 합의하여 결정한 아이템은 정부도 대기업도 막을 수 없다. 제작비가 충분하진 않지만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구성원의 의지와 역량, 그리고 자율적인 제작문화가 뉴스타파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하며 또 다른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공영방송 탐사보도의 축소 현상에 대한 원인분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널리스트들의 의지와 제작관행의 변화 및 그 영향을 다루었다. 둘째, 뉴스타파를 이루는 인력과 그들이 형성하는 제작문화의 차원에서 성과를 해석했다. 공영방송의 탐사보도가 쇠락하는 동안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는 성장했다. 정부의 억압적인 언론정책은 공영방송의 탐사보도를 무력화시켰지만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정부정책에 동조하

는 공영방송 경영진의 탈저널리즘 운영은 소속 저널리스트들을 위축시켰고 그간 축적된 경험과 신뢰를 무너뜨렸다. 교체된 새 정부의 언론에 대한 정책과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지만 공영방송이 예전처럼 탐사보도의 주체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영방송 경영진이 저널리즘을 다시 중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다고 해도 역량을 모으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떨어진 시민의 신뢰도 단시간에 회복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제작진의 의지와 제작문화가 탐사보도 제작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주로 인터뷰에 근거해서 주장했는데 실제 제작과정의 사례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탐사보도 제작의 주제 변동을 공급자 측면에서만 다룬 점도 아쉽다. 공영방송과 뉴스타파의 탐사보도를 수용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포함했다면 좀 더 입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서 수용자가 어떤 탐사보도를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방송사가 보도한 탐사보도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수용자가 원하는 탐사의 주제와 시각 등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별로 없다. 같은 견지에서 뉴스타파의 후원자 집단에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1] 강형철,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 다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 주요 탐사보도 프로그램 내용분석,” 한국방송학보, 제21권, 제1호, pp.7-46, 2007.

[2] 진민정, “한국과 프랑스의 탐사저널리즘 비교 연구: 뉴스타파와 미디어파르트를 중심으로,” 언론정보학회, 2016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3] J. Ullmann and J. Colbert, *Reporters Handbook: An Investigator's Guide to Documents and Techniques*, St. Martin's Press, 1991.

[4] 최원석, “모든 보도는 탐사보도다: 공로상 수상한 KBS 김용진 기자,” 방송기자, 제3권, pp.96-99, 2011.

[5] <http://newstapa.org/16992>

[6] 김사승, *현대저널리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7] N. Jones, Jones, *Sultans of Spin*, Vactor Gollancz, 1999.

[8] 권장원, 이병철, “신문 저널리즘에서 나타난 탐사 보도의 특징 및 변화에 대한 연구: 부산일보 탐사 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06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06.

[9] 김연식, 윤영철, 오소현, “PD저널리즘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과 제작관행: MBC<PD수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19권, 제4호, pp.79-122, 2005.

[10] 육서영, 윤석민,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서 구성작가의 역할,”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81호, pp.127-155, 2012.

[11] 박인규, “구조적 통제하의 저널리즘: KBS 시사 프로그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4권, 제6호, pp.209-245, 2010.

[12] 김연식, “방송 저널리스트의 방송 통제요인 인식 변화 연구: 2008년과 2013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1호, pp.283-305, 2014.

[13] 임명현, *2012년 파업 이후 공영방송 기자들의 주체성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4] <https://freedomhouse.org/report/>

[15] <https://ref.org/en/south-korea>

[16] 김용진, “탐사저널리즘과 비영리독립매체의 도전: 뉴스타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2014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2014.

[17] 배정근, “국내 종합일간지와 대기업 광고주의 의존관계 형성과 변화과정,” 한국언론학보, 제42권, 제4호, pp.265-292, 2012.

[18] 김재영,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하다면 어떤 주제는 못할 게 없다: 뉴스타파 최승호 PD,” 방송기자, 제26권, 2015.

[19] 박성호, “데이터 저널리즘과 발로 뛰 리포팅의 환상적 결합,” 방송기자, 제14권, pp.34-41, 2013.

[20] 성재호, “데이터 저널리즘팁 본격 가동: 뉴욕타임스NPR 탐방기,” 방송기자, 제14권, pp.30-33,

2013.

[21] 최윤원, “데이터 없이 진실을 얘기하긴 어렵다: 데이터 저널리스트 권혜진 기자(뉴스타파 데이터 저널리즘연구소장),” 방송기자, 제24권, pp.34-35, 2015.

[22] 최은희, “KBS 보도 및 편성 책임 주체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5권, 제2호, pp.187-195, 2015.

저 자 소 개

박 인 규(In-Kyu Park)

정회원



- 1987년 2월 : 서강대학교 사학과 (문학사)
- 1995년 12월 : University of Glasgow(방송학석사)
- 2005년 6월 : University of Glasgow(방송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인하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저널리즘, TV프로그램 연구